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1월 5일 (제 1287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전대미문의 축복

모세가 홍해 위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미니 넘실대던 홍해가 갈라졌다. 아브라함은 백 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았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 매 말랐던 땅에 비를 내렸다. 엘리사를 따르는 생도가 빛만 남기고 죽자 엘리사는 그의 아내에게 빌릴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빌리라고 했고, 그릇대로 기름을 채워주셨다. 죽을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의 병을 치유하시고, 수명을 15년 연장하셨고, 그 증표로 일영표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수태했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도 살아났다. 성경은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관여,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시126:1).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눅18:27).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롬4:17),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기에 그렇다. 그 하나님은 어제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동력이 무엇일까? 기도다. 모세도, 엘리야도, 히스기야도 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 같은 일을 이루셨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2). ‘크고 비밀한 일’, 이것이 전대미문의 기적이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왜냐? 그 꿈을 이뤄주시려고! 우리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히스기야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여 올해는 꼭 전대미문의 기적,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자.

만선의 꿈을 안고

고깃배 닻 올리며

고동이 울어댄다

수평선 해 뜨는데

잠루어 무엇하나

비린내 꿈틀대는

부뚝가 아낙네

만선 깃발 보며

함지박 웃음 지누나

올해, 우리도 만선의 꿈을 가지고

망망대해에 나가 보세나

153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걸세

— 속초에서, 봉우 이초석 목사

우리,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보자!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했던 지 지난해 송구영신예배에서 목사님은 3가지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저 이북과 중국 땅에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울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도 목사님의 3가지 소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에 목사님이 제시하신 ‘우리,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축복을 받아보자!’는 슬로건에 맞춰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실천해가야 합니다. 당장 이 대한민국에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안정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국민적 합의로 이룬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절차가 불상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면 공멸할 수밖에 없고, 악한 세력이 넘보는 발미만 제공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듯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끌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또한 서울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먼저 이 나라에 안정과 평화가 선포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

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딤후2:1~2).

그래서 목사님은 노량진교육관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90년대 반포 땅끝예수전도단 시절처럼 매일 기도하는 장소로 만드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이곳에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밤 8시부터 10시까지는 목사님께서 직접 기도회를 인도하신다고 하니 이 기회에 각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무엇보다 지금 당면한 국가적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전화위복의 기회,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2~3).

성경에 전대미문의 축복, 전대미문의 기적을 맛본 자의 간증을 보면 모두가 위기 앞에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전화위복, 대역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간 기록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

가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 애통하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마음마저 움직이는 기적의 역사를 밝히 보여줍니다. 한나는 술에 취한 여인처럼 보일 정도로 애절하게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닫은 태의 문을 하나님 스스로 다시 여실 수밖에 없는 전대미문의 기적으로 나타나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면벽하고 슬피 울부짖어 기도하더니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전대미문의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엘리야는 머리가 가랑이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더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초목이 다 말라 죽는 가뭄의 땅에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단비를 쏟아붓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삼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약5:17~18).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하여 새해 슬로건처럼,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각 가정에, 교회에, 사업터에, 이 나라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26:5~6)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우리는 지난 주일, 목사님의 성역 40년을 포함하여 2024년 한 해를 결산하는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목사님의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뚫려 듣게 되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장면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1시간짜리 영상만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투쟁에 가까운 피나는 과정입니다.

공짜는 독약에만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과정 없는 결과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한 가득 들이는 것만 보고, ‘ 좋겠네~~, 부자네~~~’ 하면 오산입니다. 그 농부가 이른 봄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한여름 땀방울에서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눈물겨운 노력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너무 멋져요. 안 가본 나라가 없으시니 너무 부럽네요. 목사님이 손을 대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가는 것도 너무 멋집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멋지지요. 그러나 아십니까?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지를, 물설고 낫은 이국땅에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 이름도 잘 모르는 자들, 성령도 받지 않은 자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은택 목사가 우리 교회 신문에 글로 썼듯이, 저는 호텔에 들어가 침대에 눕지도 않고 바닥에 단지 수건 두 장만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오직 기도만 합니다. 당신 스스로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을 넘지 않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하셨으니 말입니다. 이는 마치 자식을 얻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목회 40년이 그랬기에 ‘주님, 내 걸어온 길 뒤돌아 생각하니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 외롭고 고달파 외롭고 고달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독약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12차까지 했습니다. 이를 본 지인이 “정말 목사님 교인들이 준비한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너무 잘했다는 거지요. 너무 완벽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까? “당연히 우리 교인들이야. 저 작품이 거저 나왔겠

는가. 그네들이 그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손바닥, 발바닥이 다 까지고 발, 무릎에 멍이 들어가면서 노력했다네. 어디 그뿐인가? 완벽한 무대를 꾸미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밤을 새가면서 봉사한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네.”

문득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지 씨가 생각납니다. 한때 그녀의 발이 화제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레복을 입고 화려한 무대에서 백조처럼 춤을 추는 그녀 뒤에 숨은 노력이 그녀의 발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발은 그야말로 굳은살이 박힌 상처투성이였고, 발가락은 비틀어져 거의 기형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녀가 세계적 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눈물로 씨를 뿌렸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7:13~14). 멸망하는 길은, 실패하는 길은 문이 크고 길이 넓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면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열매든, 혼적인 열매든, 육적인 열매든 거두길 원하냐? 그러면 좁은 문으로 자처해서 들어가라. 그 길은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로 가면 영·혼·육에 성공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밖의 아시아 지역과 유럽 선교의 고두보였던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같이 되었고도”(고전4:11~13)라고 탄식 아닌 탄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편안함을 포기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 시대에 맥을 그은 인물들이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

의 선진들을 보면 모두 하나같이 편안함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고난의 길로 몰아넣은 자들입니다. 안주하려는 자신과 싸워 이긴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목적만 바라보고 귀는 막고 달려간 자들이 인생의 위대한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겠다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하면서,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겠다고 하면서, 최고의 기업가가 되겠다고 하면서, 최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남들처럼 놀 것 다 놓고,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으면서 편안하다 안일하다 하면 됩니까? 꿈을 버리든가, 편안하다 안일하다 하는 자세를 버리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를 염려해서 ‘좀 쉬세요’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처하여 저를 좁은 길로 몰아넣는 것은 임버릇처럼 말하는 상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니 내 아버지께서 나

라를 내게 맡기신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28~30). 이 어마어마한 결실을 얻겠다면서 쉬면 되겠습니까? 놀면서 이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당이에 땀띠가 나도록 공부해라. 몇 년 고생하면 평생을 편하게 산다.” 그렇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절이 옵니다. 제가 노랑진 교육관을 기도처로 개조하는 것도 눈물의 기도를 뿌려 기쁨의 열매를 얻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밤마다 노랑진까지 와서 기도해야 하는 수고가 있겠지만, 그 수고로 얻어지는 수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일 것이기에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16:24)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싸여 아예 씨조차 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씨를 뿌린 곳에 태양만 내리쬐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비도 와야 하고, 때론 태풍도 몰아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작품은 당년에 바로 거두지만, 어떤 것은 3년이 지나야 거두고, 인삼은 6년근이 되어야 거둡니다. 그 기간동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온다’는 믿음을 지키며 노력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기 원하면 편안함을 포기하라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작품을 남기고 싶습니까? 큰 작품은 오래 걸리고, 그만큼의 수고를 요합니다. 그러나 그 작품이 완성되면 세상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집중되는 스타가 될 것이고, 스타에게는 명성과 부귀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늦었다고 생각 말고 이제라도 씨를 뿌려봅시다. 누가복음 13장에 열매가 없던 무화과나무의 주인이 다시 두루파고 거름을 주는 수고를 해서 이제 열매를 거두겠다고 한 것처럼, 이제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2025년 새해를 맞아 예수중심교단 목회자들의 신년사를 듣는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부흥의 해



2025년 교회 표어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맞보는 해가 되자’이다. 서울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나에게는 ‘과연 어떤 전대미문의 기적이 필요할까?’ 깊이 기도해 보았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부흥이 내게 필요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내년은 ‘전대미문의 기적을 맞보는 해가 되자’로 표어를 결정하셨다는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서울교회 교역자들을 지난달에 불러모았다. 그리고 이 말을 전했다. 우리가 바라야 할

전대미문의 기적은 부흥이라고. 마음이 집을 새롭게 다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일을 시작하신 것이니 열심히 뛰어보자고 했다. 주의 종들이 목장의 양이 줄어가는데, 다른 전대미문의 축복을 갑절로 받은들 무슨 낙이 있겠는가. 목자는 자고로 양 떼, 소 떼가 꾸준히 늘어나는 재미로 사는 것 아닐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목적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분명히 언급하셨다. 첫째, 함께 동행하고, 둘째, 전도하며, 셋째,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려고 택하셨단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귀신을 쫓고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사실을 잊으면 엉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있는 줄 착각할 수 있다.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전도에 힘쓰지 않으면서 엉뚱한 목적에 계속 끌려

가면 안 된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다. 올해 우리 교단은 전대미문의 부흥을 맞보길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다.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 당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사람을 은근히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뜨거운 마음과 흥분하는 마음을 갖고 부르짖어보자. 환경을 이겨내야 한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역동적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기업가들은 정치적 환경이나 세계적인 사건에 춤추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때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 만약에 기업인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으면 그 기업은 쥐도 새도 모르게 도태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

도 못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게으름 피울 수 있는 핑곗거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여 세운 영혼들을 완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낱고 기르는 제2의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물과 거름을 공급하고, 소독하고, 풀을 뽑아주며 돌보는 수고를 계속하는 것처럼, 목회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풍성한 열매를 딸 수 있다. 풍년은 하늘 혼자 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부지런한 농사꾼의 수고가 합해서 만들어내는 작품인 것이다. 기회 주셨을 때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전대미문의 부흥을, 부흥의 해를 이루어 보자. 할렐루야!

서울예수중심교회 담임 이시대 목사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 야곱이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은 후 70명의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왕 바로가 크게 걱정할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은 급속도로 그 땅에서 번성하였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함을

막기 위해 더욱 힘든 노역을 시켰지만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리라고 기한을 말씀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채워 보존하기 위해서는 번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다(눅 14:23).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나라들이 사람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하셨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기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순교자들과 예수님의 신부들, 그리고 구원의 수가 차야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다(계6:11, 계19:7, 롬 11:25~26).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채워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무엇이 있으

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므로 나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 영원히 우리 모두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시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시 대속해주셨고,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셨다(골2:15).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2025년 새해, ‘우리 모두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보자’고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축복을 준비해놓으셨다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2절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이미 전대미문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두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루는데 자신들의 삶을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의 선전들과 동일하게 이 시대 하나님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우리 삶을 살면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나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내 집을 채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속하여 더 효과적으로 이루시려고 더욱 복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 먼저 나 자신으로 예수님의 신부의 수와 천국의 집을 채우고 계속하여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전도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채워나가며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2025년에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자. 필리핀 세부 유요한 목사

다시 한번 더 25년을...



사랑하는 예수중심교단 성도 여러분, 새해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길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인사 드립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성역 40년,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보면서 저도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한 것만 생각해도 이께 도대체 어떤 순간들인가 하고 감격스러운데, 영광스러운 25년을 또 함께 다시 하고 싶고, 그 감격스러운 마음과 기쁨과 행복이면 앞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러운 목표를 가지고 하늘보다, 바다보다 더 높고 큰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해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총회장 목사

님과 함께요. 새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감사로 시작해봅시다. 부족한 제가 목사님을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아껴주시고 기도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께 딱 붙어 계셔서 많은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또 남미 집회를 통해서 총회장 목사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성도 여러분의 아낌없는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중심교단 성도 여러분과 또 누가 뭐래도 세기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25년을 또 한 번 총회장 목사님과 함께 남미의 아름다운 영혼 구원 사역에 사용해주실 것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뜬 풍선처럼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오! 다시 한번 25년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루과이에서 이현숙 선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에 자신만만했던 저는 뇌경색으로 인해 2020년 11월, 응급차에 실려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놀랍게도 주님과 대화

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대화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야,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 감사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 그런데 받을 그릇이 없단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다.”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데요?” “말씀대로 사는 자란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감사의 축복이 또 있습니까? 그것이 뭔데요?” “그것이 종합선물세트란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즉 종

합선물세트를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그것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여, 악한 마귀는 모든 일에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들고 계시는 종합선물세트를 선물로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며 나눠주며 사는 자들이 됩시다. 전대미문의 축복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3:17~18)라고 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해에는 우리에게 꼭 맞는 종합선물세트를 주실 것입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이현구 장로

그날의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에게 총회장 목사님께서 중 고등부 부장 직분을 주신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자라나는 새싹인 중고등부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단에서 ‘여러분은 나를 닮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요, 당당한 자신감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목회에 성공한 것은 ‘기도와 노력’이라는 두 친구가 있어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 말씀에 따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는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는 ‘상상력의 전원을 끄지 마라’, ‘도전과 모험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라.’, ‘내 인생에 실패라는 단어는 쓰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항상 긍정적인 언어만 사용하라.’,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한 권의 성경으로 돌아가라.’, ‘흙은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등 수많은 말씀을 하시지요. 제가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장차 우리 교단, 우리나라와 지구촌의 훌륭한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활화하라.”고 자주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건강관리입니다. 당연히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내가 할 일은 내가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16:25). 저는 영·혼·육의 강건을 위하여 매일 아

침과 저녁 시간에 한 시간씩 기도하고 틈틈이 말씀 보며, 또 영어 회화와 중국어 회화를 30분씩 모바일로 학습하고, 만보 걷기와 헬스를 일주일에 2~3회 하거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께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자는 천하에 제일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병들면 부인, 자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내가 건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어야 남을 돌보지 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하였고, 몸이 아픈 것은 내 책임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을 잘 돌보고 기도하여 모세처럼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체력이 쇠하지 않도록 무병미락장수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길 기도합니다. 셋째는,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에 조그마한 빌딩 건축을 위하여 업체를 선정하려고 세 군데 설계 견적서를 받고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즈음에 중고등부 어느 교사가 건축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던 터라 추가로 한 번 견적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느 회사를 최종 선정하여야 할지 기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목사님을 뵈고 말씀드렸더니 교사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예’하고 결정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목사님을 모시고 착공예배를 드리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기를 1년 예상하였으나 지연되어 3개월 공기 연장을 하고 공정이 90% 정도 진행되었으나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년을 예상한 공사가 2년이 다 돼갈 형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준공이 지연되는 사연을 그 교사에게 들으시고는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박 장로, 내가 보증한 것이니 내가 책임질게.” 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해결해주셔서 마무리 짓고 준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약속은 생명입니다. 목사님이 몸소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목사님처럼 약속을 꼭 지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받는 자들이 됩시다. 끝으로 주어진 직분에 부도나지 않는 장로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중고등부 부장 박한규 장로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1:6).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지나가고

소망 가득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기도로 함께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3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태국예수중심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수시로 드나들며 보살펴주어야 할 영혼들을 제때 만날 수도, 찾아볼 수도 없던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태국 교회와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더운 기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을

안에서 소망을 찾아 반짝이는 눈으로 성경을 읽고, 거칠어진 두 손을 모아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 같은 믿음들이 모여 태국예수중심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순수한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 충만하여 감사로 채우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힘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선하심을 닦아가기 원하고 계획할 때, 악한

자를 강하게 하사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1:25). 2025년 새해,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보는 한 해가 되자고 총회장 목사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태국예수중심교회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새해에는 더욱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선한 일을 계획하시어 하나님의 전대미문의 축복 속에 늘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태국예수중심교회 권영화 전도사